

# 홀로그램 선도도시 익산 '세계로'

### 시, 국내 9개 홀로그램 기업과 일본 파인테크 전시회 참가... 글로벌 진출 활성화 도모

홀로그램 선도도시 익산시가 국내 9개 기업과 함께 세계 시장 진출에 나선다.

익산시는 오는 29일부터 31일까지 일본에서 열리는 '파인테크(FINETECH) 2024'에 참가한다고 28일 밝혔다.

일본 파인테크 2024는 전 세계 기술 제품이 출품되는 전자 디스플레이 전시회다. 사물인터넷(IoT)이나 반도체 조형(솔리드 스테이트 조명) 등 최첨단 디스플레이 기술을 만나볼 수 있는 대표적인 국제 행사로 손꼽힌다.

시는 이번 행사가 국내 홀로그램 기술 산업 발전과 세계 시장 진출 마련을 위한 중요한 교두보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대한민국 홀로그램 기업의 해외 판로를 개척하고 수요처를 발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전망이다.

익산 지역 기업으로는 △마이크로엑스알 △정완컴퍼니 △케이홀로 △토모텍 등 4개 기업이 함께한다. 타지역 기업인 △레인보우핀토스미디어 △피앤엠 △아로싱킹 △크리에이티브닷 △홀로그래미카 5개 기업도 동참한다. 이들 기업은 세계 시장에서 주목받는 다양한 혁신적인 홀로그램 기술들을 선보일 예정이다.

전시회 참가에 앞서 시는 경쟁력 강화를 통한 성과 현실화를 위해 파인테크



익산시는 오는 29일부터 31일까지 일본에서 열리는 '파인테크(FINETECH) 2024'에 참가한다고 28일 밝혔다.

크에 참여할 홀로그램 유관 바이어를 초청해 3일에 걸쳐 온라인 사업 상담회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국내 홀로그램 기술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세계 경쟁력을 확인했다. 상담에 참여한 바이어 일부는 일본 현지에서 이들 기업과 대면해 상담을 이어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전시회는 홀로그램 산업 관련 해외 바이어나 투자자를 만날 수 있는 기회"라며 "국내 기업이 세계시장으로 진출해 수출 매출을 향상하는 등 유의미한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전시회 참가는 '홀로그램 기술 사업화 실증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다. 홀로그램 기술개발 사업의 성과 활용도를 높이고 국내 홀로그램 기업의 사업화·서비스 확산을 지원하고 있다.

'홀로그램 기술 사업화 실증지원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전북특별자치도의 지원을 받아 전북디지털융합센터(전북테크노파크), 키엘연구원,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전북특별자치도 콘텐츠융합진흥원, 원광대학교가 함께 수행하고 있다.

/\*익산=이재춘 기자



## 익산시, 2024 반려동물 문화축제 성료

### 26~27일, 종합운동장서 반려인·비반려인 1만여명 모여

### 도그쇼·유기동물 입양캠페인·행동교정 프로그램 등 진행

반려동물 친화 도시 익산시가 사람과 동물에게 행복한 시간을 선사하며 반려동물 문화축제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익산시는 지난 26~27일 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에서 열린 '제18회 익산 FC국제 도그쇼 및 2024 익산 반려동물 문화축제'에 반려인과 비반려인 1만여 명이 방문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익산시 주최, (사)한국견연맹 익산지회 주관으로 열렸으며,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돼 참석자들에게 풍성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했다.

첫날 개막식에는 정현을 익산시장과 도·시의원 등 지역 정치인이 참석해 동물보호 정책과 동물산업 육성 지원의 필요성에 한목소리를 냈다.

이들간 진행된 도그쇼는 외관검사, 경보, 속보 등 동물들이 매력과 끼를 발산하며 가장 멋있고 우아하고 안정

된 자세를 선보여 관광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이와 함께 열린 반려동물 문화축제는 달리기, 장기자랑 등 반려동물의 재능을 선보이는 프로그램과 유기동물 입양캠페인, 무료 진료, 전문가 펫티켓 특강 등이 진행됐다.

특히 반려동물 행동교정 프로그램에서는 문제 행동 상담을 통해 반려인에게 맞춤형 조언으로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했으며, 반려동물과의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에 큰 역할을 했다.

더불어 이번 축제에 △반려동물 애견미용 △행동교정 유치원 △사실 반려동물 놀이터 △반려동물 카페 등 익산시 동물산업을 홍보해 관련 산업 발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했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익산시가 동물친화 산업도시, 동물 행복 도시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 지역 소식 통

### 익산시,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 수도계량기 성과 점검

익산시가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의 목표 유수율 점검과 성과 판정을 위해 수도계량기 합동 점검에 나섰다. 28일 밝혔다. 익산시는 한국수자원공사(K-water) 전북지역협력단과 2020년부터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내년까지 총사업비 606억원을 투입해 노후 상수관망을 개선하고 유수율을 높인다.

이번 점검은 사업의 성과 판정을 위해 사업대상지인 신흥급수구역 내 수도계량기 1만 8,360점에 대해 진행한다. 11월부터 초기 점검을 시작해 약 1년 간의 점검 결과로 유수율을 산정하고, 성과판정위원회에 사업 성과에 대한 심의를 요청한다. 성과판정위원회는 환경부 산하 한국상수도협회가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학계 등 외부 전문가를 포함해 구성한다. 목표 유수율인 85% 이상 유지 여부 등을 고려해 사업 효과를 최종적으로 판정한다.

/\*익산=이재춘 기자

### 군산시, '어린이·청소년 의회' 상반기 정례회 개최

군산시는 지난 26일 군산시의회 본회의장에서 군산시 어린이·청소년의회 하반기 정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제9기를 맞는 군산시 어린이·청소년의회는 지난 4월 38명의 의원이 모여 발대식을 개최한 후 어린이와 청소년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의제를 발굴하는 활동을 추진해 왔다.

이날 하반기 정례회에서는 어린이, 청소년의원들이 중심이 되어 △회의의 시작을 알리는 개회식과 △위원회별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하는 본회의를 진행하였다. 또한 의회는 '공공장소 흡연 후처리 환경 개선 건의안' 등 6개 안건을 처리하였다.

이번 하반기 정례회에서 가결된 안건은 제9기 군산시 어린이·청소년의회 의결사항으로 관리하여 관계 기관 및 부서에 반영을 검토하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반영 결과 등 성과를 12월 수료식에서 어린이·청소년의원들과 공유할 방침이다.

/\*군산=이재춘 기자

## 익산시, 함라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완료

### 함라원 준공식 개최... 40억원 투입해 카페·작은도서관 등 조성

익산시가 함라면에 활력을 불어넣고, 주민 삶의 질을 향상할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을 완료했다.

시는 28일 정현을 익산시장을 비롯해 지역 주민, 기관·단체장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초생활거점 조성 사업의 주요 시설인 '함라원' 준공식을 개최했다. 함라원은 지상 1층, 240㎡ 규모로 카페와 등대 작은도서관 등이 갖춰져 주민들의 여가 생활과 소

통 공간으로 사용된다.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의 공모 사업이다. 민소제지를 중심으로 교육, 문화, 복지 등 중심 기능을 확충해 주민 생활 여건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익산시는 함라면이 2018년 신규 사업 지구로 선정된 이후 총사업비 40억원을 투입해 △함라원 조성 △마을 안길·산책로 개선 △인도·둘레길 정

비 등을 진행했다. 또한 거점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고 지속 가능한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주민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교육을 운영했다. 주요 교육으로 △스마트폰 활용 △문화·예술 프로그램 등을 통해 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주민 스스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익산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함라면 주민 생활 여건 개선에 기여하고, 함라원이 지역 화합의 중심역할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익산=이재춘 기자

## 군산시 수송동 '아나바다 장터' 성료

군산시 수송동 행정복지센터(동장 박은하)는 지난 26일 수송공원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마을 축제인 '2024 아나바다 장터'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진행된 이번 장터는 약 2,000여 명의 시민들이 참여해 자원 절약과 환경 보호를 실천했다.

아나바다 장터는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자'라는 구호 아래, 이번 장터에서는 의류, 생필품, 도서, 장난감 등 다양한 물품이 거래되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체험 부스가 운영되어 시민들에게 자원 절약의 중요성을 알리는 자리가 되었다.

또한, 통장협의회, 부녀회, 전사누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김치전, 떡볶이, 붕어빵, 커피 등 다양한 먹거리를 준비했으며 판매 수익금은 전액 기부해 행사 취지와 의미를 더했다.

볼거리도 다양했다. 식전 공연으로 주민자치 난타, 신나는 예술巴士의 버블, 마술, 퓨전국악, 누리빛마을지역협의체 소속 학교별로 댄스와 랩, 중창 등 다양한 볼거리를 준비해 아나바다 장터를 방문한 시민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다.

/\*군산=이재춘 기자

## 군산시민문화회관 도시재생인정사업 현장방문

### 시의회 경건위, 시설 현황 청취·개선사항 제안 등

군산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지해춘)가 지난 25일 군산시민문화회관 도시재생인정사업 현장을 방문해 11월 중 예정인 정식 개관 전에 시설 현황을 청취하고 개선사항 등을 제안했다.

경제건설위원들은 대략으로 인도에서 건물로 바로 진입할 수 있도록 조성한 연결통로의 시인성 강화를 위해 입구부의 경관조명 보강을 주문했다.

이어, 해당 건축물의 조형미를 대표하는 곡선형의 콘크리트 지붕 내측면을 피사체로 활용하는 미디어파사드의 상시 연출이 가능하도록 연계사업 발굴을 주문했다.

그리고 곡선형의 지붕층과 옥상부가 구조적으로 배수가 취약하므로 기존 우수 배제구 규격이 작은 것에 대해 배수구의 확충 검토를 주문했다.

또한, 향후 민간운영자의 레스토랑, 카페, 문화예술전시공간 등의 운영 등



으로 인근 근린생활시설들의 상권이 위축되지 않고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당부했다.

지해춘 위원장은 "지난 5년간 우여곡절 끝에 군산시민문화회관이 새단장을 마치고 됐다"며 "침체된 내수동주거지 및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의회 차원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도시재생의 성공사례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군산=이재춘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전주매일 캠페인

# 고스란히 남아있는 백제 장인의 숨결



##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은 익산 왕궁리 유적에 있는 오층석탑이다. 1965년부터 1966년에 보수를 위한 해체와 복원을 실시하였고 이때 흙 속에 묻혀 있던 돌로 만든 기단부가 발견되었다. 1층 옥개석 상면과 기단부 심초석 상면에 마련된 사리공에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사리장엄구 '국보 제123호'를 수습하였다. 창건에 대한 문헌 기록이 없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정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의 건립 연대는 백제 시대에서 통일신라, 고려 시대 초까지 논란이 다양하다. 1939년부터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을 중심으로 본격적 발굴 조사를 실시한 결과, 백제 시대에 경영되었던 궁성이 폐기되자 궁성 터에 탑·금당·강당을 남북 일직선으로 배치한 백제의 전형적인 1탑 1금당식 사찰을 지은 것으로 밝혀졌다. 본래 목탑이었던 것이 현재의 석탑으로 바뀌었고 백제 멸망 이후에도 범등을 계속 이어 갔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은 1963년 1월 21일 보물 제44호로 지정되었고, 1997년 1월 1일 국보 제289호로 승격 지정되었다가 2021년 11월 19일 문화재청 고시에 의해 문화재 지정번호가 폐지되어 국보로 재지정되었다.

\*\*출처: 한국학중앙연구원-향토문화전자대전